

피부, 흔들리는 경계
Choi, Wonjin

최원진

The 11th Solo Exhibition by **CHOI WONJIN**

2015. 6.17-30

홀스톤갤러리 HOLSTON GALLERY

Tel. 042-253-0272, 221-2613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로 60 <호수돈여자고등학교>

<http://www.holston.hs.kr>

2015. 8.20-29

갤러리가비 GALLERY GABI

서울시 종로구 윤보선길 69 (화동) 2층

Tel: 02) 735 1036 / Fax: 02) 735 1039

<http://www.gallerygabi.com> / gallerygabi@gmail.com

GALLERY **gabi**

관람시간

화요일 - 일요일 : 오전 11시 - 오후 6시 30분, 월요일 휴무



①



②



③

①180×120cm, Digital Print, 2015

②120×180cm, Digital Print, 2014

③120×180cm, Digital Print, 2015

④180×120cm, Digital Print, 2015

⑤120×180cm, Digital Print, 2015

⑥120×180cm, Digital Print, 2015

⑦120×180cm, Digital Print,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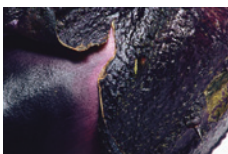
⑧120×180cm, Digital Print, 2015



④



⑤



⑥



⑦



⑧

피부, 흔들리는 경계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

- 함민복

모든 것의 경계에는 흔들림이 있다. 내 몸이 내 몸 아닌 것과 구별되듯이 사물/존재의 경계는 겉보기에 명확하다. 그러나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아도 그것은 이쪽과 저쪽이 서로 스며들어 있는, 양극을 수렴하는 모호한 장소임을 간파할 수 있다. 지도 속의 이미지와 달리 실재에선 밀물과 썰물로 혹은 파도로 인해 항구적으로 유동하는 해안의 갯벌이나 모래사장의 영역처럼.



풍경으로 만난 나(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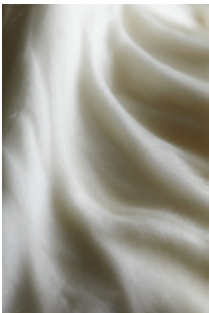
피부는 경계다. 안으로는 내 몸의 뼈와 뇌와 오장육부를 감싸고 밖으로는 나 아닌 것과 구별하는 나/존재의 최전선이다. 우리의 오감은 피부의 주요 거점에 분포하는 성문(城門)이다. 손과 발이야 두말할 것 없겠지만, 우리의 눈도 코도 귀도 혀도 모두 피부(의 일부)다. 살아있는 한 그 성문들은 작동하며 작동함이란 열림과 닫힘의 반복 순환을 피할 수 없다. 성문들을 통해 나의 바깥들을 받아들이고 나(내 안에 있던 것)를 뱉어내는 과정을 반복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 있는 동안에 닫혀 있는가 하면(나다움, 나로 존재함) 동시에 열려있는(나 아닌) 것이다.



All Living Things are Beautiful(2005)

최원진에게 이번에 피부로 명명한 사물의 표피는 늘 그 피부가 지시하는 그 사물이자 다른 것이었다. 자신의 몸을 접사하여 다양한 지표면의 풍경을 연상시키거나(풍경으로 만난 나, 2000), 말라버린 채소 속에 생명의 비약을 역설하는가하면(*All Living Things are Beautiful*, 2005) 그 조그맣고 보잘 것 없는 채소들의 단면에서 무모하리만큼 광대한 공간감을 끌어들이고자 했다(*Landscape*, 2011).

이제 그 은유의 방식이 노골적이고 직설적으로 전환되고 있다. 채소들은 여기서 껍질이 아닌 피부, 살갗을 가진 존재, 동물, 혹은 사람으로 환유된다. 일생 제자리를 지키는 수동형으로서의 생물에게서 땀 흘리고 고통을 느끼며 유혹하는 강한 의지를 품고 꿈틀거리는 능동형으로서의 욕망을 노골적으로 연출, 아니 포착해 내고 있다. 여태까지의 작업에서는 피사체의 표정이 작품의 첫 대면에서부터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다른 것’으로 보여 지도록 의도되었다면 이번 작업에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상의 표면적 속성을 더욱 강화해서 솔직하게 보여주는 방식에서의 전환이 눈에 띄는 변화라고 할까. 빨강은 더욱 빨강으로, 거칠음은 더욱 거칠음으로. 카메라 주변에 늘 가까이 두고 들여다보아 온 사물을 끈질기고 일관된 방식으로 사유해 온 여정의 반환점일까 종착점일까, 그 여정의 많은 부분을 곁에서 지켜봐 온 입장에서 짐작컨대 작업으로 육화된 정신적 완숙과 대공정, 대극의 합일(the union of opposites)으로의 진입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Landscape(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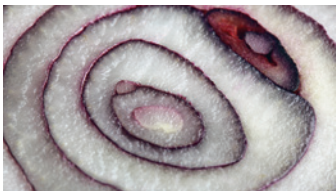
풍경으로 만난 나(2000)



나무, 잎새에 깃들이다
(2004)



All Living Things are
Beautiful(2005)



Landscape(2011)

한의원에서 한 번이라도 침을 맞아 본 사람은 몸을 새롭게 인식하게 된다. 왜냐하면 만일 일개 몸뚱이가 그 구성 성분의 모체인 우주와 우주질서의 정교한 표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쉬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최소한 그 몸의 표면, 즉, 침을 받아들이는 피부는—겉보기에 여전히 연관성을 쉽게 유추하기 난처한—자기 몸 내부의 연장이요 내부에서 밖을 향한 최전선이라는 것을 체득하게 되기 때문이다. 유사한 맥락으로 최원진의 작업은 껍질이 곧 중추라는 것에 방점을 가한다.* 종래의 작업이 필자가 토를 단 바처럼 ‘헛되고 헛되도다’의 바니타스(Vanitas)적 사유(*All Living Things are Beautiful*)를 투영하고 있다면 이번 작업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위협적일 만큼 거칠 것 없이 ‘자기’를 토해내는 색의 도발이 겨냥하는 기착지는 그가 늘 변함없이 견지해온 역설의 변증법으로서 색즉시공(色卽是空)이다. 여기서 공이 단순히 ‘궁극적 허무함’이란 일면만을 의미하지 않음을 부언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아주 오래전부터 지구상 도처의 바위에, 책에, 대대로 이어지는 장로(長老)들의 음성에 반복적으로 새겨진 잠언들의 메아리를 듣는다. 겉과 속, 나아가 이것(채소)과 저것(육신)이 사실은 둘이 아님을, 각각의 표면은 그 토대, 근원에 맞닿아 있음을. 그렇게 사물은, 각각의 존재들은 애써 인도받지 않아도 멀어 보이는 무수한 다른 존재들과 연결해 있음을 자각하기. 육화된 채소에게 연민을 가져야하는가? 여기서 우리는 그가 현란한 색채로 위장한 무심한 어투로 기실은 일상의 성화(聖化)를 역설하고 있지 않나 의심한다.

그리하여 이쯤에서 또한 우리는 자연스레 그가 왜 이토록 집요하게 표피에 집중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풀어줄 실마리를 가능하게 된다. 그의 작업은 한마디로 삶의 가장자리에서 경험하는 깊은 경외심이 조형해낸 생의 경이(驚異)에 대한 진술이다. 고락의 세월을 나누어 온 친구로서 나는 그것을 자신의 또 다른 눈인 렌즈와 함께 줄곧 닦아 온 겸허함으로 읽는다.

하나의 사물이 ‘그것(다움)’으로 응결된 순간, 그것은 ‘그것 아님’으로 열린다. 생의 에너지를 단단하게 응집시킨 봉오리가 완성되자마자 스스로 꽃으로 벌어지듯이. 봉오리가 멸(滅)하고 새로운 생으로 도약하다. 모두 하나의 나뭇가지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자신보다 큰 것으로의 귀속이다.

2015. 6. 전 상 용.

* ‘피부는 육체를 감싸는 자루임과 동시에 외계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이는 감각기관’인데 그 ‘피부는 단순한 자루도 중추를 섬기는 말단도 아니다. 피부와 뇌는 계층적인 관계가 아닌 기하학적인 관계로 이해할 수 있다. 피부는 종속적이지 않다. 피부를 뇌의 확장으로서, 뇌를 개척놓은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본질은 피부에 있다.’ – 미나토 지히로, 〈생각하는 피부〉 중에서

Skin, blurred boundary

A flower blooms at every boundary

Min-bok HAM

Every boundary is a blur. Just as the boundary of my body separates my physical being from others, the boundary of an object or being is seemingly clear. However, if you look closely, it is easy to notice that boundary is obscure—it is where more than one object or being permeates and two different things converge. It is like a mud flat or a beach, which, unlike its representation in a map, permanently fluctuates with tides and waves.

Skin is boundary. Internally it wraps my bones, brain and organs; externally, it is the front line of my being, distinguishing me from other beings. The five senses are gates that are dispersed around the key areas of skin. Eyes, nose, ears and even tongue are (parts of) skin, let alone hands and feet. As long as we are alive, the gates of our skin operate. When I say ‘operate’, I mean the inevitable, repetitive cycle of opening and closing of these gates. Through these gates, I repeat the process of accepting external things and discharging parts of myself (things that resided in my body). After all, we, living beings, are closed (being myself) and opened (being anything I am not) simultaneously.

To Won-Jin Choi, an object’s epidermis—named ‘skin’ this time—has been the object itself and also something else other than the object. Previously Choi reminded a viewer of various types of earth landscapes by taking close-ups of his own body (*The Encounter with I as Landscapes*, 2000), emphasized a paradox of life contained in dried vegetables (*All Living Things are Beautiful*, 2005), and also attempted to create a sense of grand space from the cross sections of those small, petty vegetables

Now his use of such metaphor is in transition explicitly. Using metonymy, he turns vegetables with peels and layers into animals or humans with skins. They are produced—more specifically, captured—as active beings sweating, feeling pains, wriggling with a strong will to seduce others rather than as passive beings guarding where it belongs for their entire life. Until now his works, as I mentioned earlier above, were meant to be interpreted as ‘something else’ other than the object itself from the viewer’s first encounter with his photographs, but this time Choi has shifted his style by reinforcing external characteristics of his objects we all are familiar with and revealing its true nature straight forward. Red becomes redder. Coarseness becomes coarser. I cannot help but question whether this is a turning point or the end point of his long journey as a photographer who has been closely examining objects through the lens of camera in a tenacious and consistent

manner. If I am allowed to conjecture, as an observer of most of his journey, his recent photographs represent Choi’s mental maturity and affirmation, which has become solidified through his work, and his step into the union of opposites.

Anyone who has had acupuncture starts to newly perceive one’s body. That is because, if it is too complicated for a person to accept the fact that a body can be a sophisticated expression of the universe—and the order of universe—which is the matrix of the components of the body, it is so much easier for that person to understand that, at least, skin inserted with needles—which is still difficult for one to make a connection to the universe—is the extension of one’s internal body and its front line. Similarly, Choi’s work emphasizes that the outer layer is central.* As I commented before, if his pastworks reflect the message of *vanitas* that ‘Utterly meaningless! Everything is meaningless’ (*All Living Things are Beautiful*), this time the stopover of evidently threatening provocation of colors claiming ‘itself’ in his work is the dialectic of paradox he has been holding on to from the beginning—Matter is void. There is no need of saying that void does not simply mean ‘ultimate vanity’. For a long time we have been listening to the echoes of a proverb, carved in rocks, printed on scrolls and books across the world and passed down by wise men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The proverb that Interior and exterior, ‘this’ (vegetable) and ‘that’ (body), are not two separate things. The surface of each object touches the foundation, or the origin, of the object. Hence, without being informed or guided, each being should be aware of the fact that each and every one of us is connected to other beings that seem so distant. Should we not feel sympathy for vegetables that have become flesh and blood? It makes me wonder whether Choi is making a paradox of the glorification of ordinary in a nonchalant way, which is camouflaged with vivid colo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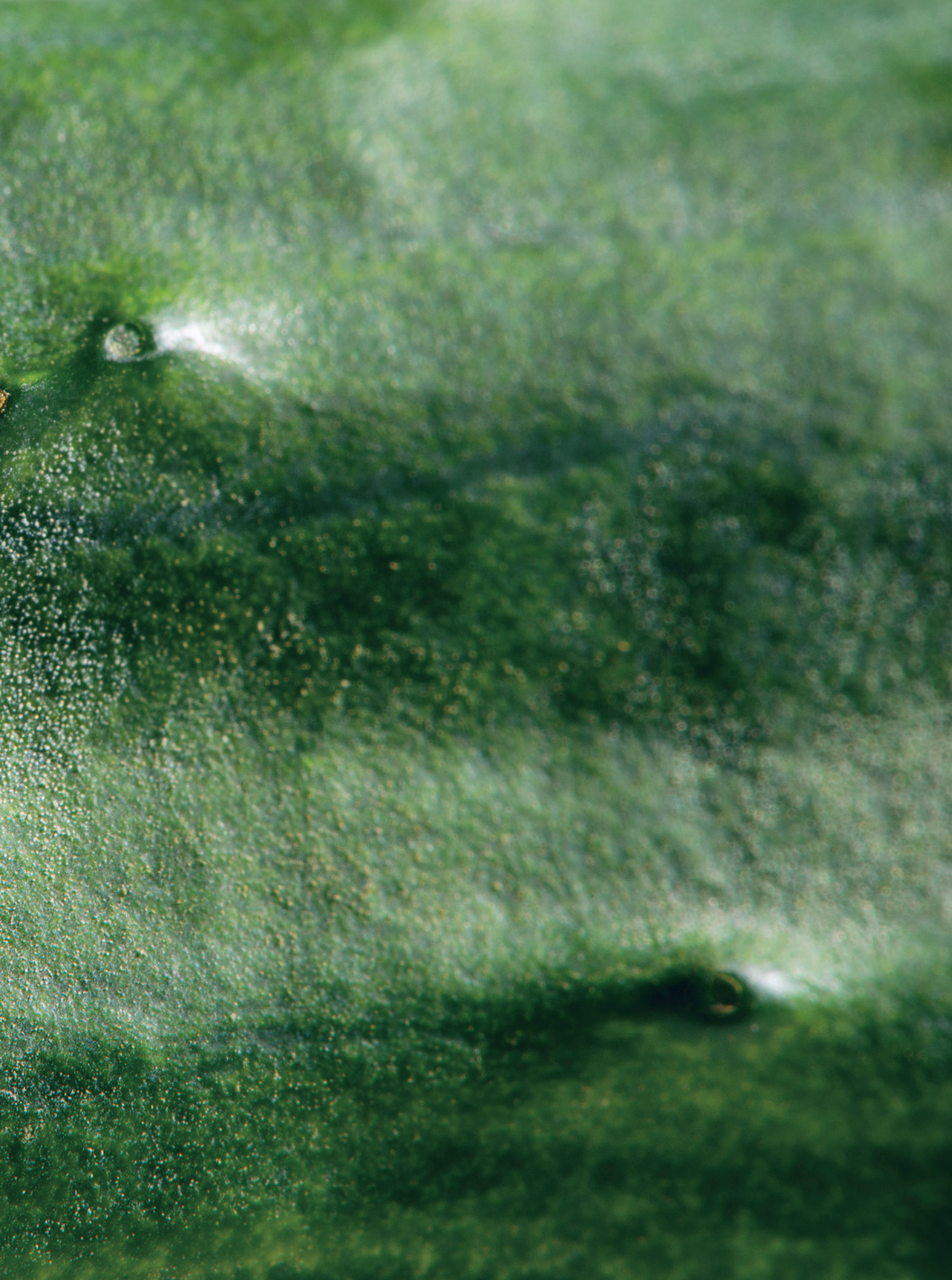
Naturally we now reach to a clue that shall answer the question of why he is so obsessed with epidermis to this extent. His work, to put it simply, is a statement about the marvel of life that is sculpted by deep awe experienced at the edge of life. As his friend who has been sharing joys and sorrows of life together, I interpret it as modesty that has been cultivated along with camera lens—his mechanical eye.

When an object is condensed into ‘itself’, it starts to become ‘something other than itself’. As soon as a bud, condensation of the energy of life, is fully formed, it begins to bloom as a flower; with that, the life as a bud ends and the new stage of life commences. All of these happen on a single branch. A return to a being bigger than itself.

June 2015 Sang-yong Jeon

* ‘skin is a sack wrapping a body and, at the same time, is a sensory organ accepting external information... [but] the skin is neither a simple sack nor a peripheral that supports the central. The relationship between skin and brain can be understood as geometric, not hierarchical. Skin is not subordinate. Skin must be understood as the extension—and folding—of brain. Skin is of the essence.’
from Chihiro Minato’s *The Thinking Sk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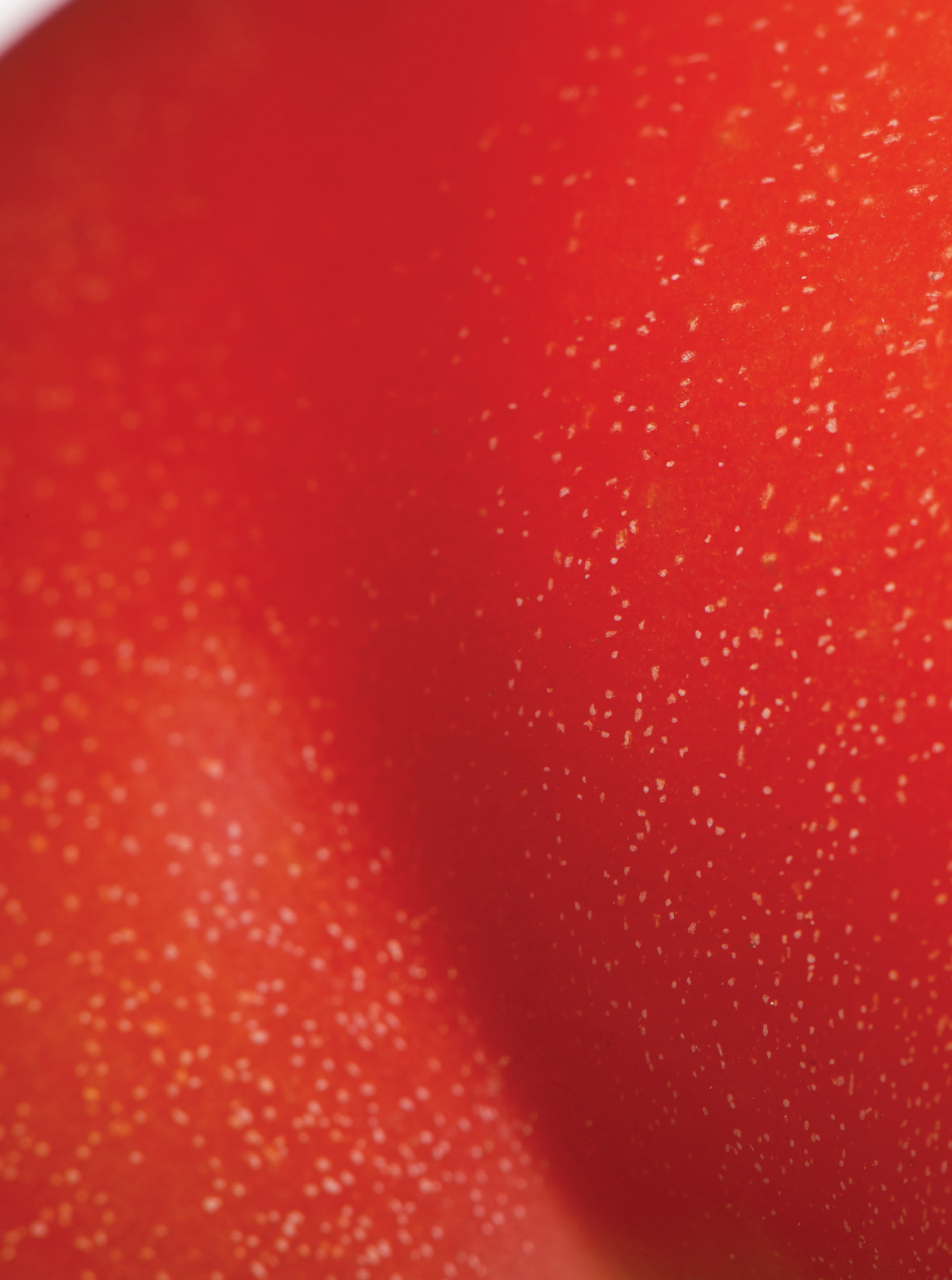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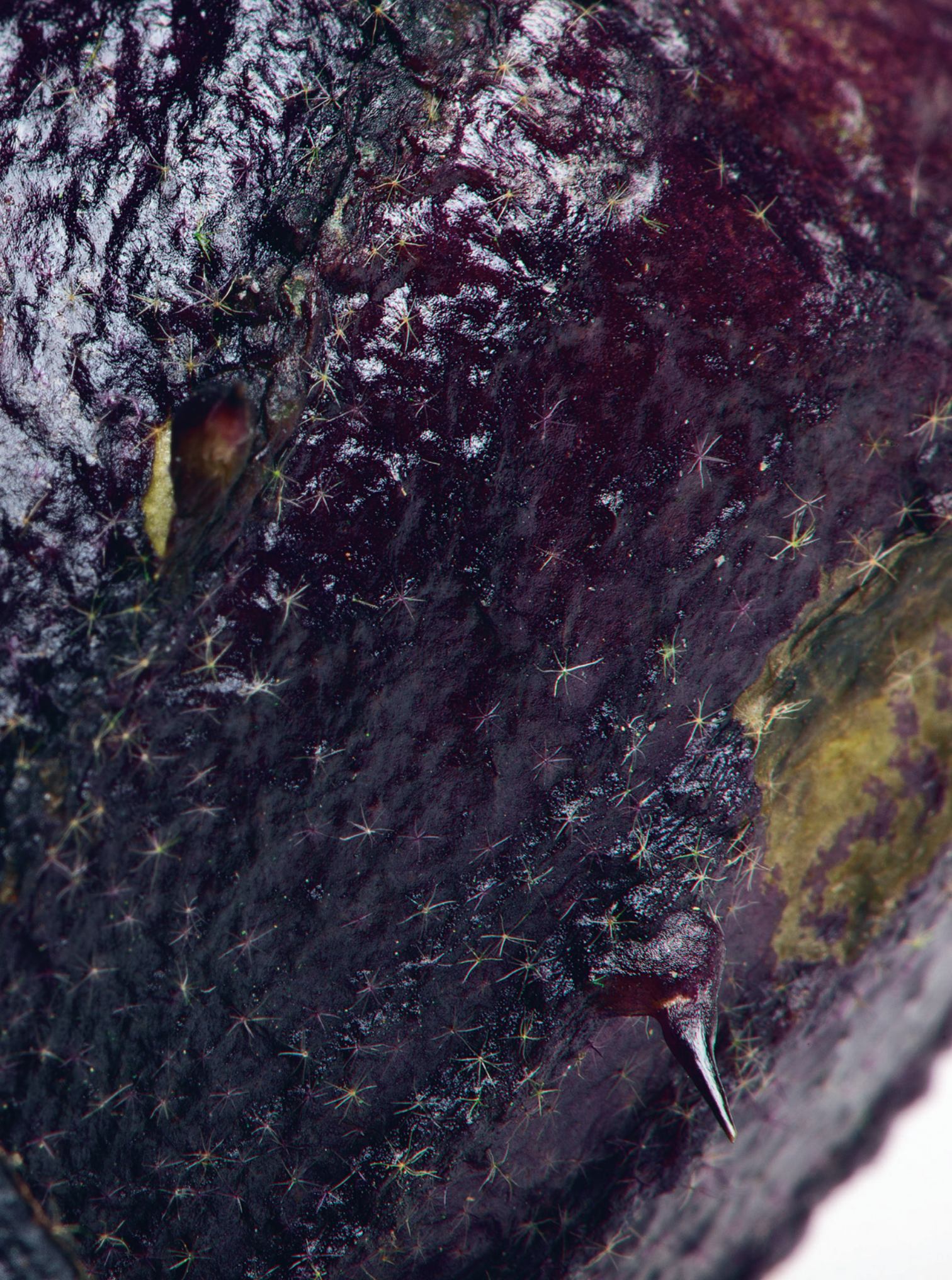
















최원진(崔源振) Choi Won-Jin

홍익대학교 금속과 졸업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산업디자인과(사진디자인전공) 졸업

일본대학 예술학부 사진연구소 수료

현,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부교수

개인전

- 1986 Images of Wall (토탈갤러리, 서울)
- 1996 Mystery of Symmetry
(삼성포토갤러리, 서울), (교보갤러리, 대전)
- 1999 分, 자화상 (시민회관, 대전)
- 2000 풍경으로 만난 나 (SK포토갤러리, 서울), (시민회관, 대전)
- 2004 나무, 잎새에 깃들이다 (그린포토갤러리, 서울), (이공갤러리, 대전)
- 2005 All Living Things Are Beautiful
(BIBI Space, 대전), (갤러리룩스, 서울)
- 2006 Vegetables (스페이스몸 미술관, 청주)
- 2007 제한된 풍경 (스페이스몸 미술관, 청주)
- 2011 Landscape(롯데갤러리, 대전), (갤러리두인, 서울)
- 2012 正 面.(홀스톤갤러리, 대전), (갤러리룩스, 서울)
- 2015 피부-흔들리는 경계(홀스톤갤러리, 대전), (갤러리가비, 서울)

단체전

- 2005 여섯 개의 아뜰리에 (대전시립미술관, 대전)
봄에 이끌림 II (시민회관, 대전)
- 2006 전환된 이미지 III (갤러리룩스, 서울)
디지털마인드 (아트앤드림, 서울)
상생과 명상III (이공갤러리, 대전)
- 2007 회화의 경계를 넘어 (목금토갤러리, 서울)
관습을 넘어 (갤러리이안, 대전)
사진, 3인의 감각 (두인갤러리, 서울)
- 2008 전환된 이미지 IV (갤러리룩스, 서울)
생명의 장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CSUS Library Gallery, 미국)
- 2009 non_table line (자하미술관, 서울)
- 2010 뜻밖의 미술 · 말랑말랑한 思考 (롯데화랑, 대전)
- 2011 전환된 이미지 V (갤러리룩스, 서울)
- 2012 또 다른 목소리(갤러리아우, 서울)
이것이 대전미술이다 (홀스톤갤러리, 대전)
- 2014 미술관속사진페스티벌-사진과 사회:소셜아트(대전시립미술관)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혜천로 100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식품조리계열
wjchei@naver.com
010-6422-7703

Graduate School of Hong-Ik University

Art Institute at College of Art Nihon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at Daejeon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Solo Exhibition

- 1986 Images of Wall, Total Gallery(Seoul, Korea)
- 1996 Mystery of Symmetry "Self-Portrait"
Samsung-Photo Gallery(Seoul, Korea)
Gyobo Gallery(Daejeon, Korea)
- 1999 Self-Portrait : Facial and Bodily Local Parts
City Hall Gallery(Daejeon, Korea)
- 2000 The Landscape Met In My Body
City Hall Gallery(Daejeon, Korea),
SK Photo Gallery(Seoul, Korea)
- 2004 Tree, Imbued with leaves, I-gong Gallery(Daejeon, Korea),
Green Photo Gallery(Seoul, Korea)
- 2005 All Living Things Are Beautiful, BIBI Space(Daejeon, Korea),
Gallery LUX(Seoul, Korea)
- 2006 Vegetables, Space Mom Museum (Cheongju, Korea)
- 2007 The Limited Landscape, Space Mom Museum (Cheongju, Korea)
- 2011 Landscape, Lotte Gallery(Daejeon, Korea)
- 2012 Perceiving as it is, HOLSTON Gallery(Daejeon, Korea)
- 2015 Skin, blurred boundary, HOLSTON Gallery(Daejeon, Korea), Gallery gabi(Seoul, Korea)

SELECTED GROUP EXHIBITIONS

- 2005 Six Open-Studio, Daejeon Museum of Art, Daejeon, Korea
Bomeiklim II, City Hall Gallery, Daejeon, Korea
- 2006 Image Transit III, Gallery Lux, Seoul, Korea
Digital Mind, Gallery Art & Dream, Seoul, Korea
16 Koren & Japan Artists, I-gong Gallery, Daejeon, Korea
- 2007 Beyond the boundaries of painting, Gallery Mokgeumto , Seoul, Korea
Beyond the customary, Ian Gallery, Daejeon, Korea
Photo, Sense of triplet, Gallery DooIn, Seoul, Korea
- 2008 Image Transit IV, Gallery Lux, Seoul, Korea
FIELD OF LIFE-The Body in Contemporary Korean Art, CSUS Library Gallery, USA
- 2009 non_table line, Zaha Museum, Seoul, Korea
- 2010 The Art of the unexpected / Soft thinking, Lotte Gallery, Daejeon, Korea
- 2011 Image Transit V, Gallery Lux, Seoul, Korea
- 2012 Another Voices, Gallery Now, Seoul, Korea
This is the Daejeon Art, HOLSTON Gallery, Daejeon, Korea
- 2014 Photography and Society : Social Art, Daejeon Museum of Art, Daejeon, Korea

Address Hyecheon-ro 100, Seo-gu, Daejeon, Korea
wjchei@naver.com